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10. 22.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후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말씀 나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인도자

(창세기 27장 1~29절)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축복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둘러싸고 한 가족 내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속임수와 갈등을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볼 때 깨닫는 은혜가 가정과 개인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버지 이삭의 실수 (본문 1-7절)

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은 자신의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배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적어도 그 언약의 중요성을 간파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즐거움인 에서의 별미(사냥한 고기)를 통해 자신의 뜻대로 축복을 해주려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편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역시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대화를 엿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대신, 염소 가죽과 속임수를 택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가정 안에서 편애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편애라는 모습으로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 다시 한 번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거짓과 두려움 속에 행해진 축복 (19-23절)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들킬까봐 두려워했지만, 어머니의 강권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의 손과 목에 덧댄 염소가죽, 에서의 옷에서 나는 들판의 냄새, 그리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는 거짓의 도구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했지만, 털이 덮인 손을 만져보고 결국 속아 넘어갑니다. 이삭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진실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마저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를 때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축복의 내용과 그 의미 (24-29절)

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은 이삭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먼저 일반 은총은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본문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특별 은총은 영적인 리더십과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혈통이 야곱에게서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실수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편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이삭은 야곱이 아닌 자신의 뜻이었던 예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렸던 적이 있나요?
그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멈추게 하시거나 돌이키게 하셨나요?
2.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 한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처럼 혹시 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경험이 있나요?
3.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위로가 되나요?

중보기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이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 주고 섬길 수 있도록
4.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서도록
5. 태아 전도사님의 건강과 요한이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과 진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